

이렇게 들었다

납세의 의무

공평과세 원칙 철저히

“중생 개개인 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를 축적하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져 도탄에 빠진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정직한 백성들은 모든 중생들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대살차니경자소설경>

“부처님께서 바라문산에 계시실 때 어느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대개 이익이라는 것은 사람을 나쁜 곳으로 떨어뜨려 깊은 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중생들은 개인적인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사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이익에 매달리면 오분법신(五分法身)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중일아함경>

부처님은 한 나라의 국민들이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했다. 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이권에 관계된 권리 주장에만 목소리를 높일 뿐 국가에 대한 의무는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국민의 의무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납세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고액 소득자일수록 탈세를 많이 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다. 최근 국제성이 실시하고 있는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안정남 국제총장은 ‘전산조사에서 일부 중앙 언론사의 세금 탈루 의혹이 포착됐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대중들의 여론을 대변하며 사회의 비리를 질타하고 정의를 외쳤던 언론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탈세를 했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이번 언론사의 세무조사는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언론사도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예외일 수 없다는 뜻에서 실시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여러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80% 이상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도 엄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단 언론사뿐만이 아니다. 세금은 소득의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복지 민주사회에서의 기본 의무이다. 하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탈법과 탈세 행위를 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부를 축적한 만큼 국가나 사회에 회향하는 건강한 자세 문화의 정착이 절실한 때다. 납세의 의무 등 국민된 도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때 참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부처님 말씀을 깨우치자.

김주일 기자
(jjkim@buddhapia.com)

황금알 집착 말고 거위 키우자

불자 세상보기

이습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노부부에게 매일 황금 알을 하나씩 낳아주는 거위가 있었다. 노부부는 너무 좋았다. 얼마쯤의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저렇게 매일 황금 알을 낳으니 저 거위 속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 알이 있을까? 그 황금 알을 한번에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들은 그 거위를 잡았으나 뱃속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우리는 어떤 시절 이 우화를 듣고 노부부의 어리석음을 비웃지 않았는가? 그런데 요즘을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광우병 소동을 접하면서 왜 이 이습우화가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

는 것일까? 인간 광우병 우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신종 AIDS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이질 말라리아나 홍역 등 이미 사라졌다고 단정하던 전염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원인은 과학적인 의학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정말로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 더 이상 광우병이나 전염병을 염려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인과연쇄의 그 첫 단추를 찾아 해결하지 않은 채 단지 하나의 연결고리에 불과한 현상적인 원인만 찾아 제거한다면 여전히 동일한 사건은

광우병... 전염병...

자연질서 파괴하는

인간 삶 경고 아닐까

재현될 수밖에 없다. 이습우화의 지혜가 새삼 돋보이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이습우화에 나오는 노부부의 결정적 실수는 무엇인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목전의 이익에 눈먼 이기심이고, 다른 하나는 거위의 생리에 대한 무지이다. 지금 우리도 이 노부부처럼 두 가지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자연, 생태계, 생명, 이러한 것들은 무한한 신비 자체이다. 그에 반

해 인간은 유한하며, 더더욱 인간 지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 조그만 지식을 전부인양 착각하고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오늘도 우리는 거위를 죽이고 있지 않는가?

사실 자연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황금 알을 매일 낳아주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토양을 제공하고, 먹을 수 있는 식물과 고기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하루라도 더 일찍 송아지를 황소로 만들기 위해 음식을 사료를 소에게 주고, 자연산 콩으로 만족할 수 없어 유전자 변형을 통해 슈퍼 콩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구석에 묻힌 쥐가 고양이에게 대들 듯이, 자연 역시 감내하기 힘든 파괴 앞에



김상득
전북대 철학과
윤리학과 교수

역으로 인간을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적자생존의 논리를 우리는 이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이나 동식물을 마음대로 파괴해도 좋다는 논리가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질 높은 인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의 질서나 생태계의 리듬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일 따름이다. 거위가 단번에 수만 개의 알을 낳기를, 그리고 송아지가 갑자기 황소로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산이 물이 되기를 바라는, 물이 산이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이 아닐까? 우리는 황금 알에 집착하지 말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살피우게 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독자의 소리

종교 지도자 정치발언 용기와 신중함 겸비

지난 5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정치권을 질타해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김경권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김 추기경은 “정치권이 다음 대권에 몰두하느라 민생이나 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치인들이 말을 너무 바귀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개탄했다고 한다.

1월 중순에 나왔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말을 생각해 보자. 똑같이 여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총무원장은 종교지도자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불자들을 실망시켰음은 물론 불교의 위상마저 추락시켰다.

불과 보름차이를 두고 나온 두 종교지도자의 말을 들으며 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뻔하다. 불자로서 안타깝다 못해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 시기심까지 날 정도다.

김수환 추기경은 천주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다. 꼭 필요한 말은 서슴없이 하는 용기, 그리고 쓸데없는 말은 결코 하지 않는 신중함. 왜 불교 지도자들은 이 정도의 지혜도 갖추지 못했는가.

불교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정외적지 못한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의 위엄을 갖는 것은 정말 요원한 일일까. <이창민·서울 관악구 신림동>

불교교리 체계적 공부 ‘흔들리는 중년’ 극복

올해로 50대에 접어든 주부 불자다. 일단 전 막내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20년 넘게 집고 살아온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시원한 느낌보다는 허탈한 감정이 앞섰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자부심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존재에 대한 의미가 새삼 다르게 느껴졌다.

며칠간 생각 끝에 그동안 다니던 사찰의 불교교양대학에 입학원서를 접수시켰다. 일년에 몇 차례 사찰에 다녔던 것이 전부였지만 혹시 새로운 무엇인가 내 허탈감을 메워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기초교리라고 공부하고 강의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책도 두 권을 구입해 틈나는 대로 보고 있다.

불교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또 하나 생겼다는 생각이 가슴이 설렌다. 지난날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변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허탈감과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거나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 평소 자기가 믿는 종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간혹 신문 지상에서 보도되는 ‘흔들리는 중년’ 따위의 얘기는 신경을 필요조차 없게 될 것이다. <장경숙·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터넷 포교 적극투자 우수 인재 확보 나서자

시대변화에 따라 많은 것이 변했다. 요즘 학생들에게 불교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아주 생소한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우리가 후진양성을 게을리한 탓이다. 포교도 같은 생각을 하는 집단이 있을 때 쉽다.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말씀에 친근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엔 불교유치원이나 종합학교를 찾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것은 내일의 불교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확보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에 ‘고려대장경 2000’이 선보였다. 10년 가까이 공들여 고려대장경을 현대화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개개였다. 이제 우리는 컴퓨터 통신에 익숙해지고 있다. 젊은이를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포교가 필요하다. 한동안 달마넷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열기가 식은 지는 이미 오래다.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포교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 정성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유니텔 불교동호회 등 자생 통신불교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러한 통신불교에 대하여 스님들의 참여 등 물심 양면의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포교도 각별히 신경 써서 불교사상의 저변 확보에 매진해야겠다.

<박경수·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처 수·회력 기술팀장>

기고

부모와 아이 함께 받는 취학 통지서



이빈파
참교육학부모회
정책부장

4년 전, 동사무소 직원이 건네준 종이 한 장-취학통지서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얻었던 기쁨만큼 내게 정말 큰 행복이었다. “하! 너석이 벌써 이렇게 컸나!” 하고 7년 동안 아이와 지낸 일들을 되짚어 보며 이만큼 길러낸 내가 마냥 대견했다. 하루하루 입학 날이 다가오 기만을 기대하며 뿌듯했다.

그러나 대망의 입학식 날, 그 날부터 일은 벌어졌다. 선생님 따라 일동을 하겠다고 주저앉아서 휴식장을 즐기며 땅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는 이미 내가 손쓸 새도 없이 선생님의 지적을 받는다.

그렇게 첫 인상부터 눈밖에 난 너석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처럼 일년 내내 선생님께 혼이 나며 불행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소위 왕따가 되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2년이 걸렸다. 학교를 좀 더 알고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부끄럽게도, 어리석은 어미 덕에 아이는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지난날 아이가 힘들게 되었던 것은 학부모가 된다는 새로운 변화에 게을렀던 내 탓이었다. 학교에 갈 준비만 했지 학생으로서, 학부모로서의 준비는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학교를 들어감과 동시에 학부모도 1학년이 된다(둘째를 입학시키는 부모도 마찬가지이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부모는 학부모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세상은 어렵고 힘들며 어차피 인생은 내 것’이라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 살아갈 준비를 함께 해줘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과정과 아이들의 학교생활, 선생님과의 관계, 학부모들의 학교활동을 구체적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그러면서 ‘인간은 결코 혼자일 수 없음’을 일깨워, 선생님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더불어 잘 지내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불교와 문화

2001년 1·2월호

www.buddhistpromotion.org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년호 특별 설문조사 - 2001 오늘의 한국불교

불교에서 보는 제3의 수행법, 왜 문제인가

우리 절의 편액 비로보기 ⑥

컬러화보 ①. (사진으로 보는) 세계 주요 불교교구의 법구(法具) 티베트의 불교 의식구

컬러화보 ②. 짙게 피는 꽃 - 동백화

컬러화보 ③. 문화탐험/문화 속의 담긴 불교의 향기를 만나다 - 인간의 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화가 알렉스 그레이(Alex Gray)의 불교적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인물포커스 - 현대 한국 불교의 거목들 찾아서 (문학편)

① 공초 오심순 - 영원한 불교인이었던 공초 선생의 무소유의 삶

② 백학 양건식 - 잊혀져있던 불교인 백학 선생의 거사불교운동

각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E-mail: kbpf@chollian.net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